

제목: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

비가 온다. 붉은 물방울은 유리창을 뚫을 듯 두드린다.
그가 떠나 간다. 잡고 싶으나, 잡을 수 없다.

조금이라도 그에 다가 갈 수 있다면
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

끊어 낼 수 있을까?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?
나를 바꿀 순 없을까?

날이 차가운가 보다, 비가 빗눈깨비로 바뀌었다.
아저씨 북쪽으로 가주세요

어느덧 빗눈깨비가 눈꽃송이로 바뀌었다.
세상이 하얗다.

하얀 세상에 내 발자국이 흙자국을 남긴다.
그래도 괜찮다.

하얀 세상에 내 바지가 젖어 간다.
그래도 괜찮다.

하얀 언덕 위 오두막이 보인다.
장작에 몸을 녹여 본다.

시간이 지나 간다.
문이 열린다.